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아주 특별한 용기

참가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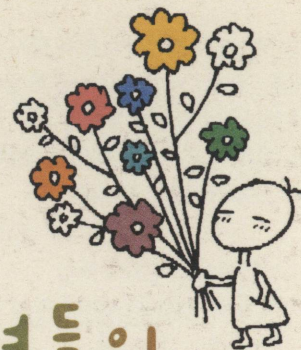
- 01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메일이나 전화, 팩스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 02 참가 신청을 하시면 행사의 안전과 참여자와의 교감을 위해 상담자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 03 말하기 참여자는 워크숍(11월 13~14일)과 사전모임(11월)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04 듣기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참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시 참가 동기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생존자말하기대회

담당자_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
- 어린(김양영희), 해갈(권주희)
문의메일_ speakout2004@hanmail.net
홈페이지_ www.sisters.or.kr
문의전화_ 02-338-2890~2
신청팩스_ 02-338-7122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아주 특별한 용기
2회 생존자말하기대회



그녀들의
목소리 세상을
울리다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후원  **여성부**



생존자라 부르는 이유

이 행사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생존자라 부르는 이유는 그간 '피해자'란 말이 지닌 '약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디기 힘든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다시 명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존자 말하기 대회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경험과 그것을 치유해나가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치유에의 힘과 용기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생존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생존자들과 지원자들의 진심어린 공감과 이해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지지자가 되는 행사입니다.

행사개요

2 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사전 행사

- | 생존자 권리헌장, 서적 등 생존자와 주변인,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전시
- | 본 행사 전에 말하기/듣기 참여자를 위한 쉬는 방
- | 생존자들의 공동작품, 작가 전시
- | 복수의 무대(부두인형), 소원나무 장식 등 참여 프로그램

본행사

- | 생존자들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형식의 말하기
- | 말하기의 의미를 담은 영상물
- | 문화공연

※ 행사 날짜와 장소는 참가자에 한해 공개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랫동안 망설였던 물어두었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예전 그땐,
시원하게 슬퍼도 못했습니다.
우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약한 모습 보이면 지는 것 같아서 눈물조차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발걸음의 무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겁게 짓눌렀던 고민을 조금은 덜 듯한 느낌.
“나도 말할 수 있구나”
평생 말할 수 없을 줄 알았던,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기억을 억압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지치게 하는 고통스러운 씨름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나타낼 기회조차 박탈당해 왔습니다.
말함으로써,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화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그것에 공감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이들이
함께 있다는 것 만으로 많은 위안이 됩니다.
나와 조금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 슬픔과 고통의 깊이를 다 헤아리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잘 살 수 있다고, 잘 살아왔다고
그리고 따뜻한 손 내밀어 조용히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녀, 입을 열다

우리 사회에서 생존자의 말하기는 아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존자들이 입을 열었을 때 돌아오는 곱지 않은 시선, 오해와 편견,
그리고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말들까지...
그래서 말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자책하거나 기억을 애써 외면하면서
고통을 온전히 혼자 감내하곤 합니다.

생존자들은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맞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비난받거나 평가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말하기를 함으로써
생존자로서의 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었을 때 떨어질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말하기는 생존자들이
힘을 되찾기 위한 용기를 의미합니다.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는 것이 하나의 꿈이라면
피해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꿈을 향한 치열한 투쟁의 시작입니다.
몸에 난 상처에 약을 바르듯, 마음에 박힌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선
생존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따뜻이 감싸 안아줄
지지가 필요합니다.

말하고 들으며 서로에게 비밀 언덕이 되고,
그리하여 그녀들의 목소리가 이 좁은 행사장 벽을 넘어
세상을 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한걸음씩 우리에게 다가올 희망의 세상,
그 날이 올 때까지 치유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참여자권리와 함께 지킬 약속

참여자 권리의 예

- 말하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말하기 전에 긴장된 마음을 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 준비한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 용기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무대에 올라가기가 어려울 경우 힘을 줄 수 있는 지지자와 같이 무대에 올라갈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한 글이나 시 등을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 말하기 참여자는 청중에게 원하는 반응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말하기 참여자는 말할 때 공간의 밝기 등 원하는 환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말하기/듣기 참여자 모두 말하기 대회 전이나 끝나고 난 후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리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당일에 즉석 말하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의 예

-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절대로 다른 데에 옮기지 마십시오.
행사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생존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 행사 중에 자리를 비우지 말아주세요.
말할 때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면 마치 외면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요. 또한 듣고 있는 참가자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개인간의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생존자들은 각기 다른 치유과정에 있습니다.
- 카메라와 핸드폰 등은 행사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도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 맡기시면 됩니다.

궁금하고 걱정되는 것들



01 어떤 사람이 말하기로 참여할 수 있나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지지 받고 싶은 생존자라면 누구나 말하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행사장소는 당일 참가자들에게만 공지되며, 입장시 참가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함께 지지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며, 말하기 참여자들의 어떠한 이야기도 인용되거나 외부에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03 어떤 방법으로 말할 수 있나요?

말하기 뿐 아니라 노래, 시, 퍼포먼스, 그림 등의 다양한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블라인드를 치거나 사전 녹음 등 목소리만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며, 이 외에 신청자가 원하는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시간은 10분정도이지만 자신의 말하기를 억지로 시간에 맞추는 필요는 없습니다.

04 듣기 참여자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직접 말하기를 하지는 않지만 지지하고 싶어하는 생존자와 그 친구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말하기 참여자들은 친한 친구, 그 동안 지지해준 자원자, 가족 등 의미 있는 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남성 지지자의 경우 다른 참가자들이 가지는 불편함과 불안을 고려하여 듣기로 참여를 제한합니다.

05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나요?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세요. 말하기 참여자는 피해를 입은 후 힘들었던 점, 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다시 살아나고자 했던 다짐 등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06 사전에 준비할 것은 없나요?

특별히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자신과 청중에 대한 믿음, 그리고 편안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로 질문해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